

[TV]

인종 차별·실업 등 적나라한 폭로 풍자 코미디

시네클럽 '삼형제와 상속자'(SBS·15일 새벽 1시)

Top 채널 톱
프랑스 TV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개그 트리오 Les Inconnus의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재기발랄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프랑스에서만 7백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감독인 디디에 부르동과 베르나르 강팡은 이 작품으로 1996년, 프랑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세자르상(영화부문)을 받았다.

베르나르 강팡은 '사랑도 흉정이 되나요?'에서 배우 모니카 벨루치의 상대역으로 열연해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배우. 인종 차별, 외국인 노동자 혐오, 실업, 주택난, 관료주의, 속물 지식인 등 프랑스 사회의 민감한 사안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이 이 영화 '삼형제와 상속자'의 가장 큰 매력이다.

부모의 얼굴과 형제의 존재조차 모른 챈 제각기 다른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어느덧 30대 청년이 된 삼형제가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베르나르, 디디에, 파스칼. 포르노 배우 겸 노점상인 베르나르는, 장



사와 연기 활동을 통해 다진 넉살과 철면피 정신으로 지인들에게 신세를 지며 속식을 해결한다. 철학과 출신의 디디에는 간신히 의류매장의 도난 감시 직원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탈의실 CCTV로 손님들의 몸매를 감상하는 것이다.

TV → 하이라이트

상대 만만치 않음 알고 긴장



주말특별기획 '하얀거탑'(MBC·밤 9시40분)=장준혁은 아주완 외과과장이 차기 외과장으로 맡고 있는 후보자의 실체를 알게 된다. 아주완의 대학후배이며, 존스 흑스킨스에서 재직중인 노민국 교수. 장준혁은 자신과 맞상대가 만만치 않을음을 알고 긴장한다.

"내 둘까지 사랑해 달라"

특별기획 '개임의 여왕'(SBS·밤 9시55분)=신진은 필서를 만나 다시는 은설을 올리지 않겠다며 자신의 둘까지 은설을 사랑해 달라 아프게 부탁하고 또한 강재호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는데, 강재호가 훈장을 하자 자신의 등에 업고 병원으로 옮긴다. 한 미숙은 주원에게 이제 그만 신전과 은설을 모른 척 해주고 싶다 말하지만, 주원은 한미숙으로 하여금 은설을 용서할 수 없게 자극한다.

3승 도전 '전주한일고'

장학퀴즈(EBS·오후 5시)=충남여고, 서울 삼성고의 관문을 통과하며 3승에 도전하는 전주한일고! 전국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명화극장 '차이리아 미녀특공대'(KBS1·15일 새벽 0시20분)=태국의 유명한 차이리아 엔젤은 미국의 칠리 엔젤과 흡사하다. 그들은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며 변장에 능하고 각기 특기를 가진 여전사들로써 보슬리에게 보고를 한다. 일단의 일본 여우들이 안다만 전주한일고에서 벌어지는 경매에서 작취한 돈을 외국으로 몽세탁하려는데 이를 소탕 할려는 입무를 받고 출동한다.